§교회 목표§
1. 천국시민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20년 표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느 2:17, 엡 5:26-27)
†행동지침†
1. 약속의 말씀 위에 갱신되는 서울교회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교회
3. 성경 권위와 충분성을 믿고 개인, 가정, 사회의 변혁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iseoulchurch.or.kr

요한복음 강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Ⅱ

(요 4:9-22)

이종윤 원로목사

3. 이방인도 구원에 이른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요 4:22)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전체를 다 실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하여 구약에서 대구를 찾아냈습니다.

(1) 룻

룻은 모압 지방 이방 여인으로 나오미라고 하는 유대인 여인의 며느리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아들에게 결혼을 했지만 곧 죽었고 이에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권하게 됩니다. 그때 룻은 "내게 당신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룻의 국적이 먼저 바뀌고, 그다음 룻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이 된다는 것은 구원을 얻게 되는 길이요, 선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못 되면 구원도 없습니다.

(2) 나아만 장군

나아만은 당시 가장 강력했던 수리아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문둥병자가 되어 고생하는 중에 유대에서 잡혀온 이름 없는 소녀로부터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 엘리사를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이름도 없는 엘리사의 집에 수리아의 장군이 찾아갔는데 문도 열어주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은 채 종을 통해서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목욕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천대를 받았으니 나아만 장군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시종은 계속 권면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어 하필이면 무릎 밑에 흐르는 흙탕물에 가서 씻으란 말이냐?" 나아만은 그렇게 말은 했지만 병은 나아야겠기에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합니다. 일곱 번 목욕하니 그의 몸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선물을 보냈지만 엘리사는 깨끗이 거절합니다. 그때 나아만 장군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청컨대 노새 두 마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겠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유대인만 예배드리는 유대인의 하나님이니 나도 유대인이 되겠다는 나아만의 말입니다.

(3) 에스더

하만이라고 하는 파사 사람이 유대인을 미워하는 중 특히 모르드개를 미워했습니다. 그런 모르드개가 키운 에스더가 국모가 되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개를 거꾸로 달아 죽이려고 했던 장대에 자기가 죽었는데 (에 8:17)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당시에도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 된다는 것은 할례를 받고 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인종 가운데 유대 민족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암미' '내 백성'이라 하셨습니다. 여기에 계약이 나타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계약은 일방 계약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계약을 파기해 버리고 배신자가 되어 하나님을 떠나 버렸습니다. 이방인은 본래부터 하나님과 먼 백성이었고, 유대인은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으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아졌습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크'는 '아웃'이라는 말이고 '클레시아'는 '불러낸 자'입니다. 안에 있는 자를 불러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어두움에서 불러내시는 것, 이것을 교회라 합니다. 불러내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불러냄을 받은 것입니다. 유대인도 예수 안으로 다시 부름을 받아야 되고, 이방인도 다시 부름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유대인이 된다는 말은 새 예루살렘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선택받은 백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만 새 예루살렘 백성이 됩니다. 구원이 거기서부터 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지성소와 성소의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이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속의 구별이 없어지고 만민 구원론을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이 따로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놀라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부르심을 받아야 되고 유대인도 한국인도 새로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새 유대인이 되고 구원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출 23:16)

오늘은 맥추감사절

코로나19 사태로 성찬식은 거행하지 않기로, Ⅰ·Ⅱ·Ⅲ부 예배 시 맥추감사헌금 드려

오늘은 맥추감사절이다. 우리 교회는 7월 첫 주일을 맥추감사절로 지킨다. 맥추감사절은 밀과 보리를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서 현대에는 한 해의 상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로 지킨다.

맥추감사절을 맞아 오늘 Ⅰ·Ⅱ·Ⅲ부 예배 시 맥추감사헌금을 드린다.

또한 주님의 몸과 보혈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해야겠으나, 코로나19 사태로 부활절과 동일하게 성찬식은 거행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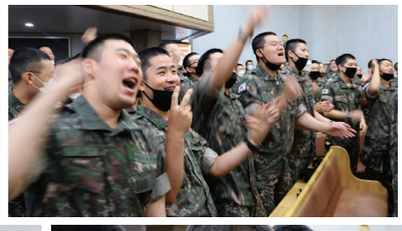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 성찬식을 거행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성도 모두 합심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자.

육군 제3사단 진중세례식

우리 교회 비전2020운동본부(본부장 : 이계홍 장로)에서 주관하는 육군 제3사단 진중세례식이 지난 6월 27일(토) 오후 2시에 강원도 철원에 있는 신교대교회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예배는 장병 178명이 참석하였고 90명이 세례를 받아 일생에서 가장 뜻깊은 날이 되었으며 46명이 축복기도를 받았다.

이번 세례식은 신종 코로나19 사태로 군부대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어 우리 교회는 참석치 않고 후원과 기도로 대신하였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 나가 있는 청년이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20 도고팀에 알려주세요.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 비전2020 도고팀장 김명심 권사
- 010-2002-6644

교회 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이종윤 원로목사 이종일 김재중·김유경 조승식 유명석 김영표 최정훈 이영민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비말차단 일회용 마스크 2,000매 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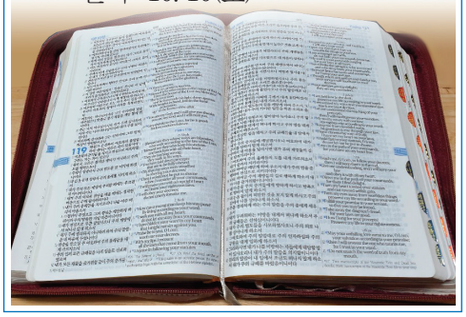
지난 주 김관섭 집사·하혜심 집사 가정(12교구)에서 비말차단 일회용 마스크 2,000매를 교회에 기증하였다. 김관섭 집사의 병원에서 사용하는 마스크와 동일한 종류로 마스크 한 장이 귀한 시기에 이번 기증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이 마스크는 예배 참석자들 중 필요한 성도들에게 우선적으로 배포 할 예정이다.

2020 성경암송대회

2020년 성경암송대회에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바란다.

1. 교회학교별 성경암송대회(예선)
   * 일시: 9. 27(주)
   * 암송범위: 시편 119편
2. 각 부서별 성경암송대회(본선)
   * 일시: 10. 10(토)



매년 7월 첫 번째 주일은 한 해의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날로서 한국교회는 맥추감사절로 지킵니다.

맥추절(麥秋節)은 오순절(五旬節) 혹은 칠칠절(七七節)이라고도 불렸습니다(출 23, 34장, 레 23장, 신 16장). 오순절은 유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 시내산에 강림하신 날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오순절을 율법수여절로 지킵니다.

기독교에서는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오순절을 성령강림절로 지킵니다. 오순절이란 명칭은 신약성경에만 나옵니다(행 2:1, 20:16, 고전 16:8). 오순절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명칭이라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 밀과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서 지킨 절기입니다. 따라서 초실절(初實節)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출 34:22).

성경적으로 맥추절과 오순절은 같은 날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는 오순절은 부활절 후 50일째인 성령강림절로 지키고, 맥추절은 7월 첫 번째 주일로 구별해서 지킵니다. 그것은 한 해의 전반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맥추절의 초점은 감사에 있습니다. 현대화된 도시문화 속에서 농경문화의 전통들이 사라져 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마음은 결코 잊지 맙시다.

(편집부)

일본에서 선교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종윤 원로목사님과 선교위원회와 교우님들께 일본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2020년도 벌써 7월입니다. 나라별로는 코로나19 문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교회적으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영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 한국은 코로나19가 조금 안정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만 일본은 다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일반인들이 PCR검사를 받을 수 없고 고열이 3일 이상 있어야 PCR검사를 받을 수 있어서 검사 결과가 양성 확정을 받으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상태가 심한 사람부터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에 집에서 대기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유명한 탈렌트들이 있어서 이제야 국민들이 위험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2020년 올림픽 문제로 빨리 대응하지 못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 세계에서 가장 늦게 코로나19를 대처하는 상황이 벌어져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자숙문제로 노숙자들과 어린이 식당 협력사역도 할 수가 없어서 노숙자분들에게는 도시락을 나누어 주는 걸로 대체하고 어린이 식당 가정에는 물품을 나누어 주는 걸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클럽과 선교사들의 모임도 할 수가 없어서 줌(편집부: 인터넷 원격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안부를 묻는 정도입니다.

전 국민들에게 자숙을 요청하여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확진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PCR검사를 해 봐야 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일본 인구의 1/3 이상이 감염자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상황이 어려운데 그게 사실이면 일본은 대처할 병원과 의료진이 부족하여 패닉상태가 일어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학교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미국처럼 9월부터 학기를 시작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2021년 7월 올림픽도 개최 취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로 나라와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저는 2019년 4월부터 관동교구에서 동경교구 동경신애교회로 이동하여 사역을 시작했는데 동사목사인 스즈키 목사님의 개인적인 문제가 심각하여 2020년 4월부터 동경교구 임원 목사님들과 상의하여 동경 와세다쪽의 일본기독교단본부 건물 1층 회의실에서 주일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일본 기독교단의 많은 교회들은 교인들의 고령화로 인터넷 예배는 생각할 수가 없어 주일예배는 설교편지를 각 가정에 보내 드려서 주일날 성도님이 설교편지를 읽는 것으로 예배를 대체하고 있으며 헌금도 할 수가 없어서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5월 6일 골든위크때까지 자숙을 요청했지만 또 다시 연장을 한다고 발표하여 교회 예배도 연기되었습니다. 자숙 요청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자숙요청이 풀려야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위: 코로나19 사태 전 허창범 · 현미순 선교사가 진행하였던 노숙자 점심제공 사역

아래 : 한부모 가정 혹은 방치된 가정의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식당',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역이 중지되었다.

저는 2020년 4월 1일부터 동경글로리아교회 개척 준비로 기도하며 줌클라우드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현재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하여 다섯 가정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40대의 젊은 가정들이라 아이들이 8명이나 있습니다. 예배드릴 장소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게 서울교회 모든 분들의 기도와 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4면에 계속)

왼쪽 : 코로나19 사태 전 도쿄 한국학교 기도회
오른쪽 : 코로나19 사태 전 일본 성도들과의 교제

(3면에 이어서)

서울교회도 교회의 어려운 문제와 코로나19로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일본 선교를 위하여 저희 가정을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꼬맹이 성강이가 어느덧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3월부터 영남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에 입학하여 부림교회 김영식 목사님의 배려로 교회 숙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학교가 정상으로 이루어지면 학교 기숙사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평강이는 4월부터 동경한국학교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복지시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저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기도 덕분에 다 건강합니다.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사용하기 위하여 저를 만들어 가심을 깨닫고 있습니다. 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정말 제 자신이 너무나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족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후원하여 주시는 서울교회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4월 5일부터 동경글로리아교회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마 5:16) 표어와 "복된 소낙비"(겔 34:26)의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오전 11시부터 12시 15분까지 줌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소는 〒169-0051 동경도 신쥬쿠구 니시와세다 2-3-18 (1층) 일본기독교단 동경글로리아교회입니다. 표어와 교회 이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회의 어려운 문제와 코로나19가 속히 해결되고 언제나 건강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기도 제목

1. 개척하는 동경글로리아교회와 성도님들과 저희 가정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2. 코로나19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 모든 사역이 정상화가 되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3. 예배당과 선교센타 설립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일본에서
허창범·현미순 선교사 올림

서울교회 에티켓

반드시 체온측정 후 입실

손소독제로
소독 후 입실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7월 10일(금) 국군중앙교회 장로 정책세미나에서 주제강연을 한다.
7월 11일(토) 사랑의 쌀운동 조찬기도회와 국제울란바타르 대학교 이사회에서 각각 설교한다.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7월 5일 맥추감사주일을 맞이하여 2020년 상반기 동안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옵소서.

2. 우리 교회의 모든 송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교회가 속히 회복되어 이웃의 등대, 민족의 구원선, 세상의 나침반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3.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위에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전쟁의 위협 없게 하시고 복음화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교인 성경읽기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
(딤후 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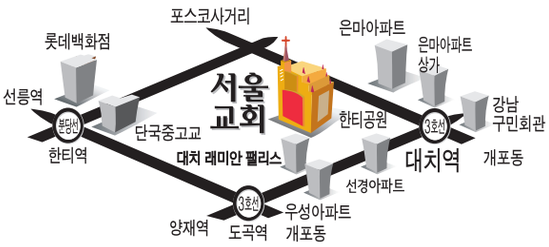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7월6일	월	시 130-136		창 42-46	
7월7일	화	시 137-144		창 47-50	
7월8일	수	시 145-150		출 1-9	
7월9일	목	잠 1-3		출 10-14	
7월10일	금	잠 4-6		출 15:1-21:32	
7월11일	토	잠 7-9		출 21:33-26:37	
7월12일	주일	잠 10-13		출 27-32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5시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